불교 가르침 노래로…밴드 보컬은 스님

소수민족 출신 모인 다르마 밴드
기타·키보드·싱잉볼 연주자 구성
중국 대도시 순회공연 성공 개최
수익금 다양한 교육 활동에 회향

박영빈 객원기자


자신의 밴드와 함께 밀라레빠의 게송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툴쿠. 사진출처=신화통신

불교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게송을 현대적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스님 밴드가 중국에서 화제다. 지난해 12월 28일 신화통신은 '다르마 밴드'를 이끄는 메인 보컬 '바로 툴쿠'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다르마 밴드는 4~5명의 편성으로, 몽골족과 만주족의 기타리스트, 티베트족의 키보드 연주자, 한족의 싱잉볼 연주자 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밴드를 이끄는 메인 보컬은 티베트 불교에서 고승의 환생자로 인정 받은 바로 툴쿠 텐진 도르제 스님이다. 바로 툴쿠는 "내가 8살 때 디궁 까규파의 종정인 충창 린포체께서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기억한다. 곧 나는 양리강 사원의 6번째 바로 툴쿠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바로 툴쿠는 어렸을 때부터 환생자로서의 소양을 위해 전통적인 강원 과정에 따라 불경과 논서들을 배웠으며 표준 중국어와 영어와 같은 현대적 교육을 받았다. 또 탱화조성이나 작법무, 범패 등의 예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예술에 소양이 있었던 바로 툴쿠는 평소에도 사원에서 배운 게송들을 전통적인 음률로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며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가장 즐겨 부르는 게송은 11세기경 티베트의 대성취자인 밀라레빠의 증도가이다. 흔히 〈밀라레빠 10만송〉으로 불리는 이 게송들은 티베트의 사찰과 민간에서 자주 민요처럼 불리며 지난 2021년에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바로 툴쿠는 "2004년에 처음 〈밀레라빠 10만송〉을 배웠다. 민간에 전승되는 게송들은 아무래도 개사되거나 곡해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바른 게송은 그 분량이나 내용이 심오해서 사원이나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졌다. 나는 바른 게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며 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2006년 전통적인 밀라레빠 10만송 구술하기 위해 라싸를 찾았던 바로 툴쿠는 당시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와있던 중국의 유명배우인 천쿤을 만났다. 불자였던 천쿤은 바로 툴쿠의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아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첫 앨범이 발표됐다. 이후 종단 차원에서도 바로 툴쿠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다르마 밴드'가 탄생했다. 바로 툴쿠의 밴드는 티베트의 라싸 외에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에서도 중국의 주요한 대도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중국 내 순회공연을 마친 밴드는 수익금으로 불교전문학당, 탱화교육센터, 무료 어학당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로 툴쿠는 "공연이나 녹음이 없을 때엔 나도 한 사람의 출가자로서 후학들을 위해 강단에 서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바로 툴쿠는 "장래에는 불교고전을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하기 위한 번역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해외에서도 나의 방식으로 전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泰, 몽골불교 전통 의식무 '참' 사진전 성료

사진작가 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 개인전

지난해 12월 25일 미술 전문지 '스티얼 월드'는 태국에서 열린 몽골불교 전통 의식무 사진전 성료 소식을 전했다. 현지 예술계는 이번 전시가 몽골불교와 함께 전해오던 예술의 복원이 몽골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몽골 불교 의식무 참. 사진출처=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

태국 방콕 리버시티 1층 RCB에서 '사람과 그들의 세계: 참, 신의 춤' 사진전이 열렸다. 주태국 몽골 대사를 포함한 12개국의 대사가 참석하여 개막식을 알린 사진전은 사진작가 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의 개인전이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몽골 예술과 문화적 측면을 들여다보는 주제로 몽골불교에 전해지는 전통 의식무 '참(tsam)'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 몽골 가면 박물관의 작품과 스님들이 전승해온 참의 영상을 단독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몽골 3대 사원 중 하나인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 몽골 가면 박물관 및 몽골불교에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그는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을 방문하고서 불교의식무인 '참'에 관심을 가졌다. 불교 가면극은 티베트에 뿌리를 둔 불교가 몽골에 전해지면서 생겨난 독특한 예술이다. 불교를 몽골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부드러운 전략이었다"며 촬영의 주제로 참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 "몽골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겔룩파는 전통적으로 교학의 철저한 연찬과 엄격한 계행을 종지로 삼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참은 도적적인 교훈을 모두에게 쉽게 전하는 가면극"이라며 단순히 가면이나 화려한 의상뿐만 아니라 참 속에 들어있는 교리적 배경도 중요하게 보아야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몽골불교는 각 사원마다 각기 다른 참 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산혁명과 1937년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사원과 성보들이 대거 파괴되고 출가자들이 살해당하면서, 그 명맥이 극도로 쇠퇴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동남아 3국 불교 지도자, 평화 협력 '결의'

메콩강 환경 지키기 위한 협력
마음챙김 실천 지속 다루기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 지도자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협력과 관계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모인 3개국 불교계의 동향을 보도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 지도자 회의'는 지난 2018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시작된 이래 3국간 불교의 전통적인 관계, 연대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2월 24일부터 나흘에 걸쳐 각각 이틀씩 호치민시와 럼동성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환경 관리에 대한 불교의 견해: 지속 가능한 세계 육성'으로 3개국의 평화와 조화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집중했다.

베트남 내무부 차관이자 정부 종교위원회의 부국장인 부치엔 탕 박사는 개회식에서 "불교는 동남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개선하며, 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또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유사성은 모두 각국 간에 공유한 불교적인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불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는 틱 티엔 논 스님. 사진출처=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베트남불교 승가집행위원회의 위원장 틱 티엔 논 스님은 "이번 회의는 특히 3개국의 생활 환경에 필수적인 메콩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불교계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환경, 빈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3개국의 불교지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각국 불교계의 관계 강화를 촉구했다.

캄보디아를 대표한 봉킴손 스님은 교육, 문화, 인도주의를 새로운 관계의 기초로 삼고 서로에 대한 자비와, 세상에 대한 자비를 키울 것을 요구했다. 나흘간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3개국의 불교대표단은 상호의존의 연기법 안에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 가능한 생활, 이를 가능케 하는 마음챙김에 대한 문제와 서로의 생각을 토의했다. 회의 끝에 각국의 불교대표단은 "불교의 물적, 정신적 자원을 공유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플랫폼 역할로써 컨퍼런스의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함을 이해했다"고 결의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3개국은 불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 상호의존성의 이해,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 모색, 마음챙김과 단순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삶 안내, 마음챙김 실천과 상호 연결을 통한 행동고취, 마음챙김을 통한 현명한 소비 촉진, 다양한 대중을 위한 불교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다문화 대화 장려 등 6가지 하위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잠양 런던 불교센터 신년 특별법회 봉행

달라이라마 특사 양텐 린포체 초청

지난해 12월 2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잠양 런던 불교센터의 신년 특별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잠양 런던 불교센터 신년 특별법문 홍보사진. 사진출처=잠양 런던 불교센터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잠양 런던 불교센터는 1978년에 런던의 램버스 구에서 티베트 출신의 스님인 라마 툽텐예셰와 라마 쇠파 린포체에 의해 설립됐다. 1995년부터는 램버스구의 구법원 건물을 매입하여 사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350명 가량의 회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 출신으로 티베트 전통 강원교육을 마친 게세 남닥 스님이 상주 지도법사로 지도하고 있다.

양텐 린포체는 1월 13~15일 〈까딴의 심오한 열가지 보물〉, 까딴 4본존(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부동명왕) 관정, 〈연기 찬탄문〉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며 이중 두 개의 법문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후 린포체는 런던 브루넬 대학 심리학 교수 엘레나 안토노바 박사와의 대담회를 통해 명상과 의식에 대한 불교와 과학적 관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잠양 런던 불교센터는 "양텐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독일출신 게세마 켈상왕모 스님의 강의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 금 용

중앙원로회
의원 금 용
의원 남 파
의원 설 봉

중앙종회
의원 지 공
의원 원 일
의원 연 봉

지방원로회
의장 금 명(태평사)
부의장 금 용(장원사)
의원 원 명(학림사)
의원 도 수(봉정사)
의원 성 천(흥국사)
의원 설 봉(관음사)
의원 남 파(오봉사)
의원 현 오(학천사)
의원 수 진(용화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총무국장 심 일
교무국장 선 주
재무국장 명 휴
규정국장 도 진
종무주임 자 비 심

지방종회
의장 도 안
수석부의장 여 허
차석부의장 도 우

지원 공 일
지원 법 진
지원 연 봉
지원 혜 양
지원 승 휘
지원 보 현
지원 법 용
지원 도 봉
지원 덕 산
지원 도 허
지원 영 휴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수 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전화 061-473-5122